

공·세·여·성·학·교

치열한 삶을 고민하는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힘있는 사랑·단결의 시작

제6대 총여학생회

“치열한 삶을 고면하는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연세의 교정에 그 어느때보다도 학기찬 발걸음들과 싱그러운 얼굴들이 넘쳐나는 새봄에 흰옷을 사들, 단결의 시각 제 6대 총학생회가 “연세 여성 학교”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의욕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고면하고 자신의 고면을 풍부히시키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고자 노력하는 연세 여학우들의 치열한 삶의 고면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이번 “연세 여성 학교”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나의 문제로 받아안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번화, 발전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의식들을 모아 함께 듣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진행되는 “연세 여성 학교”에서 역사학과 생동감으로 새 봄 여학우들 돌보이는 연세 여학우들을, 치열한 삶을 고면하는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3월 30일, 첫째 날 -기지촌 여성의 삶

1966년 전북 순창에서 농부의 5남매중 넷째딸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측 여의고 16세때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의 한 공장에 취직한 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평택과 동두천을 전전하면서 미군 접대부로 일해본 군이, 앞은명크 담요 한 장과 작은 옷가방 하나 밖에는 일반적인 생활인의 방이 갖춰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방에서 평택 보전소가 발행한 미군 상대 윤석 허가증만을 띠고 채 한달은 삶을 마쳐야만 했던 군이는 바로 얼마전 참혹한 죽음으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우리의 딸 윤. 군. 이. 입니다.

“윤군이 살인 만행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땅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자행되어 왔던 범죄행위에 관심을 갖게됐고 그 슬한 사건들의 미온적이고도 불평등한 처리에 분노를 느끼게 된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윤군이 씨의 죽음을 낳았던 기지촌과 기지촌에 사는 여성들의 삶을 돌아볼수 있었면 기회는 적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떠한 삶의 직곡속에서 기지촌이라는 천난한 곳에 들어와 살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기지촌이라는 삶의 공간속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다시 어떠한 고통을 겪어지고 살아야만 하는지... 이땅을 사랑하고 이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감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한번쯤은 나의 문제로 가슴아프게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군이 살인 만행 사건” 재판에서 만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윤군이씨의 한을 풀 수있는 판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지촌의 형성배경과 실태

1. 기지촌 형성배경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무장해 재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군정은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철수 1년 만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며, 1950년 7월 12일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인 소위 패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같은 해, 이승만일당에 의해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에 넘어가면서 결국, 미군은 군 지휘권과 치외법권적 지위를 한국전쟁을 통해 누리게 되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주한미군의 주둔이 영속화된다.

이렇듯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 군통수권은 물론 군사작전권마저 장악한 미국은 한국군대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이리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병참기지화된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2. 기지촌의 실태

들어가며

미군의 구체적 존재현황과 기지의 폐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대안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군기지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표출되는 조건반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남녘 땅 판문점에서 제주도까지 계양된 성조기가 진실로 국제평화의 화신인지 기지촌의 실상을 짚어보며 파헤쳐 보기로 한다.

현재 4만 6천명의 군인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은 한국에 1백20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두고있다. 이중 일백개가 지상 군기지이며, 공군이 18개 해군이 2개이다. 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의 총면적은 약 5천만 평으로 한국군 사용기지 면적인 2억5천만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편성 현

황은 주둔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번성하는 기지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 주한 미군부대 주변의 대표적 기지촌은 서울 중심에 자리잡은 이태원, 기지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동두천, 그 밖에 의정부, 군산, 송정리, 대구 및 송탄을 들 수 있겠다.

기지촌형성으로 생기는 문제들

1.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기지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에 묶이는 등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기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일부 상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역경제에 대한 기지의 기여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흥서비스업종이 번성하여 물적토대를 잠식하기 때문에 지역을 정체시켜버린다. 기지촌의 경우 대개 인구유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2.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기생관광에 비해 기지촌여성들은 장기체류하는 미군들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되어 국제결혼과 '혼혈아'라는 민족문제를 대두시킨다.

* 국제결혼

기지촌에서는 보통 계약동거의 기간을 거쳐 한달에 약3백여쌍, 일년에는 3천여쌍이 국제결혼을 하게되는 데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겪는 언어차이, 생활습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미국인의 우리와 다른 결혼관념에 대부분 70-80%가 다시 이혼을 당한다. 이들은 이국땅 미국에서 조차 술집, 환락가로 빠져드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 혼혈아

미군과의 동거관계가 깨지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매춘 여성의 그리고 조국의 버림으로 혼혈아들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자라는 혼혈아들은 평생을 주위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취업의 기회도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된다.

3. AIDS

미군 접대부들을 상대로 한 AIDS 및 국제성병검진이 한달에 한번씩 실시된다

고 하나 강제력이 없는데다 검진 기피로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에이즈 예방의 역작용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정작 필요한 미군들은 실시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AIDS감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써 에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만 강제 수용 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 기지촌의 퇴폐분위기로 인한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군들을 통해 이식되는 퇴폐적인 양키 저질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분식당한 채 자녀교육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실례로 일반 주민들은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지만 자녀들은 거의 서울등의 도심지로 유학을 보내 교육을 시키는 실정만 보더라도 기지촌 주변의 퇴폐성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5. 주한미군의 환경오염문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정부의 무관심이 이를 더욱 조장시키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에 환경파괴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미군기지의 폐유유출, '석유다리', 소음, 농경지파괴, 그리고 핵관련물질의 처분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맺으면서

미군기지는 지배의 상징이며 기지주둔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기지의 철수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장치들의 철거가 아니라 외세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기지촌여성의 생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CAMP STANLY를 중심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CAMP STANLY 는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9개의 미군부대 중에 하나이다. 이 부대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송을 위한 헬기와 1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부대의 후문쪽 약 400M 길가에는 각종기념품 판매 가게와 CLUB 들이 늘어서 있고 이 길가의 옆쪽으로 판자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곳 CLUB 들은 내국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미군과 내국인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고 미군 전용 술집으로 바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의 터전(?) 이 되고 있는 곳이다. 대체로 이 CLUB 지대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춘에 종사하다가 팔려 오는 경우와 바로 이곳으로 오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기지촌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매춘여성들에게조차 양념에게 붙어먹고 사는 '싸구려 양갈보' 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해야 하는 CLUB 의 생활과 성병 감염의 공포, 연탄불 하나 제대로 들어 오지 않는 하숙방에 기거해야 하는 생활 조건이 이들의 처지이다. 이들 기지촌 여성의 삶의 장소가 되고 있는 미군 전용 CLUB 들은 CAMP STANLY 의 후문 400M 길가에 전식품 가게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들 CLUB 에 출입하는 여성들의 보통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기준은 CLUB 과의 채무관계 여부라 할 수 있겠다. 대체로 CLUB 에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기지촌 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빚을 짊어진 채 이곳으로 팔려 와서 CLUB 에 기거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또 한 유형은 CLUB 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경제적 관계로 볼 때 후자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이지만 역시 열악하다 할 수 있겠다.

보통 이들이 활동하는 CLUB 의 영업은 미군의 퇴근시간인 저녁 6-7 시에 시작되어 새벽 2-3 시까지 되는데 기지촌 여성들은 이러한 CLUB 의 생활 주기에 맞추어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게 된다.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CLUB 에서 파는 술값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받은 화대가 주 수입원이 된다. 보통 한잔 가격이 1000 -5000원씩하는 술은 미군에게 몇잔 팔았는가를 계산해서 총 액수의 50 80%를 CLUB 에 자리세로 제공하고 나머지 20-50%를 여성이 갖게 된다. 또 펌프 (기지촌 직업여성 중 나이들은 중간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 에게 주어야 하는 손님 소개료와 하숙비를 제하고 나면 이들의 수중에 들어 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영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포주들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이들이 판매한 술잔의 술을 속이고 그 액소를 착취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수입은 그야말로 쥐꼬리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입으로 그들이 자신의 빚과 생활비를 채우고 나면 이들이 경제적인 부를 늘려 나갈 방도는 전

혀 없고 오히려 CLUB 의 빛은 손님을 끌고 자신의 몸치장을 위해 지출되는 돈을 조장하기 위해 더욱 늘게 되어 결국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그 모멸적 대우 및 인식과 기지촌에 들어 오기 이전에 가졌던 사회 경험은 이들이 이 곳을 도망쳐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좋은 미군을 만나 자신의 빛을 갖고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군의 군대 중원 방식이 직업군인으로 변함에 따라 미군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최하층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었고 이러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룻밤의 화대로 지불하기 싫어서 폭력으로 제압하고 귀대하는 놈, 자신의 항수를 달래기 위해 CLUB 풀입하는 여성의 빛을 갚아 주고 국제 결혼해 주겠다고 감언니설로 꾀어 몇달 생활하다 실증 나면 본국으로 도망가는 놈, 욕하면 시비 걸어서 얼굴을 망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놈, 아무튼 미국에서도 저질로 불리워 지고 있는 놈들이니만큼 이 곳 CLUB 에서의 그들의 행동도 가장 추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고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기지촌 여성과 미군이 싸움이 일어 났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미군 MP가 미군의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예사이고, 국제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어도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집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생활은 이들을 철칙없는 감옥에 가둔 격이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게 갖은 행패를 당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의 경제적 근원인 미군이 팔아 주는 술잔과 하룻밤의 화대에 있는 만큼,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미군을 처벌한다고 해도, 이 미군이 부대에 들어가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릴 경우 미군이 발길을 끊음으로서 그 여성의 밥줄을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수 없고 다시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신세인 셈이다.

게다가 이들 여성에게도 미군을 서로 많이 끌어 들이려고 하는 묘한 경쟁의식이 붙어서 사모에 대해 경원시하면 개인적으로 고립된 채 미국식으로 자식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매주에 한번씩 성병 검사를 받기 위해 검진소에 가야만 하는데 만약 이 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선병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3-4일 동안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야 한다. (실제 이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이 될 경우 그 생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게 된다.)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빛 청산을 위해,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CLUB 생활을 중단 할 수 없

으므로 이들은 성병 진료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CSMP SYANLY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성병 진료를 찾는 사람은 4-50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이 처지와 고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불안정한 그들의 생활 모습은 이들로 하여금 어디 한 곳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오직 선량한 미군의 구원의 손길만 기다린 채 기지촌에서 나이를 먹어 가면서 포주가 되거나 혹은 펌프로 혹은 밤에만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지촌의 아이들은...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에도 두레방 아이들에겐 따스한 아랫목이 없다. 바닥 난방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겹옷을 벗고 하이얀 입김을 내가며 콧물을 흘려거리며 놀기에 바쁘다.

기지촌 아이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귀여운 아이들이다. 그러나 몇몇 아이의 눈엔 유독 설움이 가득하다.

의정부 송산 두레방의 아이들은 기지촌의 상인, 매매춘 여성, 포주, 극빈한 노동자들의 아이들이다. 아이들 눈에 비치는 기지촌의 모습은 군복입은 험악한 미군들, 밤마다 요란한 Club, 엄마를 포함한 매매춘 여성들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기지촌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질 성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춘 여성들은 미군들로부터 다양한 성행위를 요구받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많은 매를 맞아야 한다. 따라서 매매춘 여성의 집에도 포르노 테일이 있기 마련이다. 월세 5만원의 단칸방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비디오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엄마와 미군이 함께 자는 모습도 같은 방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어른들의 성행위를 흉내내거나 하게 된다.

미혼모의 딸인 6살난 Y는 아저씨가 매일밤 엄마를 무겁게 하니깐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두레방 선생님께 말하고 있다.

아무 죄없는 이 아이들이 주위에서 보고 듣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엄마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이러한 악순환속에서 매

매춘 여성들의 아이들이 남들이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인격체로 자라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다.

두레방에선 금지되어 있는 장난감과 의성어가 있다. 그것은 무기류와 총성이다. 아이들은 미군 기지에서 자라면서 무기 폭력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고 아이들은 인격 형성에 많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

X는 한국 엄마와 미군사이의 아이로 미국에서 살다가 두레방에 오게 되었다. 지금도 한국말이 서투른 X는 처음 두레방에 왔을 때 "두두두두"라는 총성이외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X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온순한 아이지만 가끔씩 X의 아빠가 핵대로 아이를 때리는 것 같다고 두레방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기지촌 여성의 최대의 바람은 어쩌면 미군과 국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이 나라를 떠나 새롭게 살아보려는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선 보통 미군 아빠가 한국 엄마를 폭력으로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둘사이의 아이조차도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도 미국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두레방의 혼혈아 중에서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다. 영어로 으시대며 한국 아이들은 무시하고 그랬던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설득으로 지금도 자기가 먼저 "선생님, 전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미국인이죠?"라고 말한다고 한다.

K는 동생과 같이 혼혈아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도 엄마의 성을 따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미군과 결혼 약속을 하고 아이를 가진 후 미군은 혼자 미국으로 내뱉는 경우이다. 많은 여성들이 잘 모르는 까닭에 아이를 호적에 못올리고, 그나마 올린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사들도 학부모의 항의에 혼혈아들에게 정상적인 배려를 못해주고 그렇다고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엔 교육비가 너무나 비싸다고 한다. 이렇듯 혼혈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엔 초등교육부터 너무나 장애가 많다. 입양은 일정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부대 주소록을 통해 친아빠를 찾아보지만 대부분 아빠가 아이를 거절해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하게 된다. 좋게 표현해서 입양이지 사실 "팔려간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입양시키는 엄마야 "부잣집에 가서 귀여움받고 잘 살겠거니"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보내겠지만 일꾼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 아이가 그 광활한 미국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H는 새엄마와 노동자인 아빠와 살고 있다. 놀이방을 무척 좋아했던 H는 새엄마를 맞은 이후로 놀이방에 안나오고 있다. 새엄마가 회비를 안내고 애한테 신경을 전혀 안쓰는 것이다. H는 두레방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해 혼자 집에서 글씨 연습을 해서 선생님께 자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새엄마는 걸으로는 아이가 가라고 떠밀어도 안간다고 떠

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어린 H의 눈에는 항상 서러움이 가득하다.

두레방에서는 아주 적은 회비를 받고 있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율은 두레방을 운영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그렇기에 두레방 창밖에는 안에서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기지촌의 아이들인 것이다.

기지촌 활동을 다녀와서...

작년 2학기때 과 홍보판에 '두레방 후원회 모집'이라는 광고가 붙었을 때는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과 선배언니의 권유에서 후원회를 들게되었다. 그후 후원회 모임과 기활동을 통해서 두레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일을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처음 기활은 지난 겨울방학때 3일의 기간동안 선배 4명과 동기와 함께 의정부 두레방으로 갔었다. 기활에 가기전에 선배언니로부터 주의사항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등을 이야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는 금방 적응할 수있었다. 두레방에서는 주로 기지촌 주변 아이들의 교육과 탁아를 운영하고 그외에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사업을 벌여 좀더 나은 방향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우리 기활팀은 주로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 오전에는 미취학 아동들과 만들기, 그림책 보기, 노래등을 하고 오후에는 글씨를 쓸 수있는 아이들과 국민학생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기지촌의 포주인 아이들, 매매춘 여성의 아이들도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잘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비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두레방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활동 중간중간에 두레방을 찾아오는 전에 매매춘을 했던 아줌마-그곳에서는 이분들을 언니라고 부른다-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대하는 것이 어색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대화도 잘되고 농담도 건네며 친숙해 질수 있었다. 처음에 두레방이 생겼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내지도 않고 언니들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곳 실무자들의 오랫동안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두레방의 모습이 갖추어 졌다고 한다.

기활을 마치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두레방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

있다. 왜 그들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국은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를 마치 식민지처럼 지배해왔던 그 나라에 책임을 돌려야 했다. 주한미군이 없었다라면 기지촌이라는 단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제2의 정신대처럼 착취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혈아라는 놀림을 받으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버려지는 아이 또한 없었을 텐데...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 이른바 '기활'은 아직은 농활만큼은 대중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제2의 중군 위안부로 지금도 이땅에 버젓이 존재하는 매춘여성들이 기지촌의 군인들을 상대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상담하거나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식민지 조국의 아픔과 함께 태어난 혼혈아나 그들의 어머니들을 사고파는 포주의 딸들이 한나절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인 "두레방"과의 연계로 점차 자리잡혀 나가는 기지촌 활동은 크게 놀이방, 공부방, 기지촌 여성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하루(오전 10-오후 6시)를 중심으로 오전에는 미취학 아동들과 놀이를 하고 기활팀이 준비한 프로그램 -노래 배우기, 동화구연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간식을 먹고나면 놀이방은 정리가 된다. 점심시간은 기활팀이 준비해간 재료로 두레방 언니들과 함께 마련한 식사로 때로는 기지촌 언니들과, 때로는 두레방 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게 되며, 오후에는 취학아동들이 모여 진행되고 있는 각자의 학습을 지도하는 공부방이 열리고, 틈틈이 아이들 외에도 그곳의 주민들-주로 놀이방이나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시간도 갖게된다.

이러한 하루 일정으로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을 활동하면서 기활팀들은 나의 사랑스런 가족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기지촌의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서의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두레방 빵

"내가 두레방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두달이 지났다. 송산에서 살아온 지 이번동안 축적

에서 익히면서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바깥 길이 없었다. 그러면 중저난해 11월 두레방에서 축적일을 할 수없는 나이많은 여성을 위하여 빵과 라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나이는 어렸지만 축적일을 그만두고 싶었기에 사정을 설명하였고 두레방에서는 기쁘게 받아주었다. 처음 맛들어 보는 당근빵, 호박빵, 사과빵, ...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울때마다 나는 새로운 기쁨을 얻게됐다. 특히 두레방에서는 방부제나 나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재료만을 쓰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생겼고 내가 어느곳을 가더라도 빵을 만들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도 가지게 되었다. 두레방에서 일하게 된 것이 나로서는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송산 두레방 남숙희-

두레방에서 벌이는 또 한가지 특이할만한 사업은 8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빵 만들기이다. 빵 만드는 일은 처음에는 늙어서 더이상 매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0대, 30대 기지촌 여성들도 두레방 빵을 만들고 싶어했다. 이것은 이 여성들이 결코 방탕하거나 노동을 기피해서 기지촌까지 오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90%이상이 건전한 노동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저학력이기 때문에 영세한 봉제공장과 같은 곳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곳은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도 적고 작업환경도 나쁘고 노동조합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노동에 공지를 갖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이러하누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서서비스 직종밖에 없다. 이발소나 다방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국내남성을 상대로 하는 매춘지역의 포주한테 끌려가게되고 이러한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기지촌까지 오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촌 여성들은 가난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더이상 밀려갈 곳이 없게 되버린 여성들이다. 이렇듯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젊은 기지촌 여성들도 두레방 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매춘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미 매춘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건전한 노동으로의 환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두레방 빵은 매춘 여성들 모두가 건강한 노동으로의 환원, 재사회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답과 더불어 이를 위한 사회, 제도적 여건의 조성 요구까지 말해주는 것이다.

4월1일, 둘째 날

-성, 바로 알기

남자친구들라의 자리에서 우연히 '성'에 대한 한제가 나오면 아는 척 하자니 "알랑
 까졌더니"라는 소리 들을까 겁나고 모른 척 하자니 "웬, 내숭!"이라는 농담이 두터워
 서 친목할 수밖에 없었던 경현이 여학우들에게는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친목을 깨고 성년이 되어 자연스럽게 남자들라의 잦은 접촉이 이
 후어지는 시기, 학생회에서나 동아리에서나 혹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고
 고면되는 남녀관계에서 동측되는 몇가지의 성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이야기 해
 봅시다.

자위행위, 몽정, 혼돈... 이런 단어에는 그저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고, 애무, 혼전관계, 피
 임... 이런 단어에는 일부러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늘지고 왜곡된 성인식에서
 이제는 연세 여학우들이 벗어나 진정 밝고 아름다운 자신의 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가
 운데 더욱더 건강한 자기 삶을 마련할 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니
 다.

더 이상은 무지가 순결을 아니다.

의심을 받으니 모르는 게 약?

'기혼 여성이 귀뜸하는 첫날 밤 처녀티 내는 감쪽 행동법' 어느 여성지의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틀림없이 처녀로 보여지는 행동이라며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 신랑이 팬티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지 말것. 호텔에 들어가면 주워다 놓은 고양이처럼 암전히 있을 것. 성관계를 가질때 야릇한 신음 소리를 내지 말것. 옷은 신랑이 벗기도록 내버려 둘 것. 결정적인 순간 다리를 벌리지 말것 등등. 이러한 충고와 함께 첫날 밤의 성행위가 끝난 뒤에는 나직한 소리로 울음을 삼키라는 이야기까지 자상하게 덧붙이고 있다. 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여자를 볼때 성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부터 던지는 남성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처녀티를 내는 법을 악착바르게 일러주는 여성지. 여기에서 비법은 '자고로 처녀란 성에 대해 모르는 여자'라는 동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단. 남성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당사자인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는 척하면 의심만 받는 게 사실 아닌가요? 전철안에서 옆사람이 스포츠 신문을 펼쳐들고 있으면 어깨 너머로 함께 보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야한 만화가 나올때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지요. 은행이나 미용실에서 여성지를 뒤적이다 성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꼼꼼히 읽어보지만 남들의 눈이 의식될 때는 그냥 건성으로 넘겨버리지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음탕한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20대 초반인 한 사무직 여성의 말이다.

'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시키는 여자들. 사실 가정이나 학교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성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한 굳이 알려는 여자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에 관한 무관심이 처녀성과 정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땅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순결인 양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여자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것은 순결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에 가깝다. 자신의 몸을 자세히 모르는 것이 미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벗

어나 이제는 여자들도 구체적인 성지식을 알아야 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크게는 그릇된 성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작게는 무지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성의 무지

임신 6개월이 가까운 몸으로 어머니의 손에 끌려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온 여중생이 있었다. 딸이 임신을 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어머니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단순히 살이 찌는 걸로 여겼다는 소녀. 여기서 우리는 성에 대해 무지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 소녀에게 임신을 시킨 사람은 고등학교생인 사촌오빠를 일요일 오후 혼자 집을 지키다 일을 당한 소년은 워낙 경황이 없었던 데다 생리도 불규칙했던 탓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결국 그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중절수술을 해주는 했지만 어린 나이에 소녀가 짊어져야 할 상처가 너무도 안스러웠다고 의사는 토로했다.

그래도 그 소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니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비슷한 나이면서도 정상적인 교육에서 소외된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술집 접대부가 되는 등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최근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여성 생산직 노동자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산업체 가족계획 및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및 전략개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의외로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9%가 14-19세에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으며 20대 초반에 경험했다는 사람도 60%정도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예비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임신 사실을 안 다음에야 피임약을 먹거나, 질에 삽입하는 피임약을 먹는 약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생산직 노동을 하잖게 여기는 사회의 인식 속에서 직장생활로 기쁨이나 성취감을 얻기 힘든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입이나 학벌이 좋은 남편을 만나 공순이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더욱이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독립해 혼자 자취를 하는 외로운 환경은 그들을 무절제한 이성교제에 빠지기 쉽도록 만

든다. 이들을 주로 상담하는 한 전문가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단순한 피임교육보다는 이성문제나 배우자에 배우자에 대한 바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자들의 성도 대상화되기는 마찬가지

이처럼 성에 대한 무지는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불행한 결과가 모두 내수며는 여자들만의 책임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여자에게는 순결함을 강요하는 반면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되도록 장려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어찌면 그 주범인지도 모른다.

왜곡된 성문화는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에게까지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힌다. 적극적인 성행동을 보일수록 남자다운 남자이며, 성에 대한 호방한 태도가 곧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 여기는 성문화 속에서 남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이다. 괴행사 뒤풀이에서 주저없이 음란 가요를 부르는 대학생, 휴가를 나가는 사병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군대,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서 바이어를 접대하고 그녀들과의 동침을 은근히 조장하는 회사, 아무리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면 남자들은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야 한다. 그 속에서 여자들의 성이 왜곡화되고 아울러 남자들의 성까지도 대상화되고 도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현상은 팽배해져가는 것이다.

순결이란 무엇인가

순결이 아니면 죽음을

얼마전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죽은 그녀에게는 남다른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바로 그것. 그 순간부터 순결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두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몇번의 자살 미수 끝에 결혼식 며칠전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고만 것이다.

대체 순결이란 무엇인가? 순결의 어떤 점이 여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것일까? 국어사전을 보면 순결에는 '마음과 몸이 깨끗함'이란 뜻풀이가 달려 있다. 그러면 아

이처럼 맑은 마음과 티끌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몸을 가진 사람을 순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순결을 성경험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를 향해 흔히 '순결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수식어이다. '순결한 여자'라는 말은 자주 사용해도 '순결한 남자'라는 말은 들어보기 힘들지 않은가.

순결은 소중하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육체적 순결을 잃었을 때, 순결의 상실은 그 소중함 만큼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 성폭행범과 맞닥뜨려 순결을 잃은 여자들에겐 이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사하는 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들어 성의식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랑과 결혼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과 이어지지 않는 혼전 성경험을 치명적인 결함이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여자들을 압박하면서 때때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86년 신문지상을 요란하게 장식했던 부천 경찰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이다. 수치심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여자들의 심리를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다.

남성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만든 순결 이데올로기

순결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발생시킨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급이 발생하면서 여자들의 지위와 역할은 남자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축적된 부와 권력이 일부 계급에 집중되고 또 계급내에서는 남자에게 집중됨으로써, 지배계급의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음 세대까지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해지면서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함께 여자에게는 순결과 정절이 강요되었다. 이후 여자들을 억압해 온 순결과 정절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남성중심 사회의 조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결과 정절 이데올로기는 조선 중기때 확고해졌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양반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양반수를 제한해야 했다. 그 결과 서자 차별과 더불어 부녀자에게 정절이 요구된 것이다. 특히 여자의 정절관은 '열녀'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힘입어 사회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대부 집안에 열녀가 나면 물락한 가문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였고 양민이나 천민의 경우 과중한 戶役의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딸이나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 한 집안이 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서구 사상의 도입과 신식 교육의 영향으로 남녀 평등사상

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920년대의 이른바 '신여성'은 그 물결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잡지 「신여자」편집인 김일엽은 육체적 순결을 정조의 척도로 삼았던 전통적 성윤리를 비판하면서 사랑없이는 정조도 없다는 '신정조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러한 신여성들의 주장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설부론 주장과 자유분방한 생활로 인해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사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나혜석과 윤심덕의 비극적인 종말은 그들이 서있던 시대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을 해방하는 길은 섹스가 아니다" 1963년 「여성의 신비」란 책을 썼던 베티 프리던은 미국의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다. 사상적으로 미숙했던 우리 나라의 신여성들 역시 프리던이 지적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방종이 남녀 평등이며 자유라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의식을 오래도록 지배해온 순결과 정절 이데올로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단지 표피적인 성개방의 물결에 편승함으로써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자들에게 순결을 강요해온 역사의 뒤편에는 남성 중심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음을 그들은 간과했던 것이다.

이중적인 성규범의 극복

순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역사 발전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고 있다. 오늘날 순결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대략 세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보수적 입장으로 순결은 생명만큼 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두번째는 심심찮게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 급진적 입장으로 구시대의 잔재인 순결은 더이상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며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마지막은 이도저도 아닌 눈치파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첫번째 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눈치파 역시 입으로는 급진적 사고를 설파하다가 막상 순결의 문제가 자신의 일로 닦혔을 때는 보수적 순결관으로 급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그 어떤 입장이 옳다고 단정짓기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여자를 억압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발생되었음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순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에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위의 세 입장은 하나같이 일면적인 사고로 순결을 바라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해결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우선 개인적 책임의 문제에서만 순결을 바라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순결을 잃은 것은 곧 죽음이며 파멸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포자기에 빠지는 여자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순결을 잃은 여자의 품행만을 탓하는 사람들의 굴절된 시각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릇된 순결 이데올로기를 유지시켜온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자의 순결은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여자의 순결만 문제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규범 역시 꾸준한 노력으로 바로잡힐 수만 있다면 '순결한 여자'만큼 '순결한 남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면 당연히 함께 살고 싶어진다

칠삭둥이(?)가 늘고 있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녀가 있었다. 그들이 만난 공간은 대학 캠퍼스. 처음 시선이 마주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그들은 차츰차츰 둘만이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랑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다. 햇살 따뜻한 날에는 수업을 빼먹은 채 교외선을 타고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비가 오는 가을 저녁엔 창이 넓은 찻집에 마주앉아 향기 짙은 커피를 마시며 흐르는 창밖의 빗물을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와 다름없이 여자를 집으로 내려다주던 남자가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용감하게 키스를 시도했고, 여자는 앙칼지게 남자를 뿌리치고 돌아서서 집으로 뛰어갔다. 콩당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렇게 일 년 반 가량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콩당거리는 가슴으로 가로동 희미한 골목길을 돌아서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아니라 모퉁이에 여관 간판이 반짝이는 그런 길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가 함께 살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혼전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서로 실증을 느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헤어졌을 때이다. 이럴 때 상처받는 쪽은 일방적으로 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는 이별 이후 헤어짐의 상처로 인해 자신의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는 경우는 드문 반면, 아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자는 적지 않은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임신율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낮설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남녀간의 성관계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회의 오랜 성규범이 무너져가는 증거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된 표현일까? 그러나 91년 한 해 동안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자 가운데 미혼이 1/3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혼전임신은 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머무의 이모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성가치관

원시 사회에서 결혼은 성생활의 시작이란 의미가 아니었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결혼은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이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충동에 부가된 무거운 제한의 하나였다. 오늘 날에도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 결혼 전의 남녀가 자유롭게 성을 향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분별한 난교를 일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살 이상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거나 상대방을 자주 바꾸는 일은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령 성풍속이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한 쌍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때는 일정기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페링거라는 독일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처녀들은 무차별적으로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는다. 대개는 한 쌍의 남녀가 일정기간 함께 지내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일은 극히 드물다." 덧붙여 그는 결혼 전 자유로운 성관계의 습속을 가진 원시 부족과 유럽 젊은이의 연애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성실태를 보면 그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한여름 쿨 섹스', '아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등 요즘 신문광고란에 오르내리는 큼직한 여성지 기사 제목은 우리 사회에 여자들의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은 누구나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혼전에 매춘등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문제시 하지 않으면서 여자가 혼전에 임신을 하면 품행이 좋지 않은 여성으로 여긴다. 사회적 관습과 규범의 굴레는 아직도 여자의 성을 옥죄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의식

여자는 자신의 삶을 맡아줄 한 남자와의 관계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남자들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기를 꿈꾸고, 여자 또한 결혼 첫날밤까지 마땅히 순결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혼전 성경험이 있는 여자는 자신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으리라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서 혼전 성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은 참으로 우매하다. 단, 하나의 원칙은 있을 수 있다. 바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고 책임지겠다는 주체적 태도이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불리한 지금의 환경속에서 더욱 주체적이어야 할 쪽은 여자이다.

자신의 삶에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단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다는 식의 의존적인 태도는 버릴 수 있다. 다른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설령 혼전에 성관계를 가졌다해도 '이사람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헤어짐도 가능한 것이다. 처녀막의 상실에 연연해 하면서 다시는 새로운 사람을 뒤흔들게 사랑할 수 없을 꺼라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원하지도 않는 만남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주체적 삶의 태도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만에 하나 헤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처녀막을 건드리지 않고 진한 육체적 애무만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이 시대의 사랑법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면 서구의 성개방 물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여 방종한 성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며 행동한다. 이것을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은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하나의 편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유사한 새편법으로 재생산되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남녀간의 불평등한 이중적인 성윤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처럼 성문제의 왜곡은 우리사회의 성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더욱 심화되어 갈 뿐이다.

4월 6일, 세째 날

-엣 호루라기 소리가...

작품 해설

이번 연극은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에서부터 연극 '위기의 여자'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화계 전반에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교적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최근의 '김부남 사건'이나 '김보은, 김진관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받고 있는 성적 억압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한 예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문제에 대한 학계의 시각이나 소설 등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비해,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여진 여성 문제는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는 극단론으로 가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는 남서옹리 가진자의 편에, 여성을 피해자의 편에 놓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올바른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구도로는 남성에 대한 적개심과 여성의 홀로서기라는 해결할 수 없는 미로로 빠져들 뿐이다.

기존의 많은 연극과 영화들이 여성의 처절한 삶을 소재로 하면서도 결론은 개인의 양심에의 호소로 끝날수 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핵심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쉬, 호루라기 소리가...'는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명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천적 과제도 던져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극은 그 '사회구조'의 측면중 바로 "교육"의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와 평등이 여성문제 해결의 한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여성문제는 더욱 더 근본적인 데서부터 파생되고 있다고 본다.

인지가 발달할 때부터 유형, 무형으로 배워 나가는 남, 녀 불평등 교육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인간의 평등의식을 마비시키고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물질적, 의식적)를 아무런 거부반응없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왜곡된 현상은 바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왜곡된 교육의 피해자는 남, 녀 모두이다. 얼핏 남성은 그 교육의 혜택자인 것 같지만, 그들역시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으며, 단지 그 혜택의 정도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차이 뿐이다. 또한 여성 역시 알게 모르게 그 이데올로기의 율가미에 사로잡혀 그것의 철저한 수행자가 되기도 한다. 바로 본 연극은 이러한 양상과 그 피해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총 여섯개의 에피소드로 이어져 있는 이 연극은 일종의 유니버스 연극이다.

첫 장면은 유치원의 생활이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아이들의 놀이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장면은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시간이다. 여성의 왜곡된 순결교육이 그들의 인간적 삶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교실의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 장면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방 통행식의 의사 결정과 남성 중심적 사고를 행동 양식을 중심으로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네번째 장면은 매스컴을 통한 사회교육의 왜곡상을 그려내고 있다. 주부들의 사행심과 이기주의를 유발시키는 주부대상 퀴즈와 여성을 상품화하는 C.F. 그리고 여성을 성적 희롱 대상으로 하는 군인 프로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여성의 상품화를 희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섯번째 장면은 여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콤플렉스를 세 사람의 여성을 등장시켜 보여주고 있다. '신체 콤플렉스', '성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세 여자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여섯번째 장면은 여성이 당한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잠재된 여성 문제가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성폭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성폭력을 다룬 여러 매체들이 주로 여성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성폭력이 가해진 이후 또다시 가해지는 사회의 폭력을 다루고 있다. 한 여인을 둘러싸고 그 여인의 가족과 친구, 매스컴등이 어떻게 한 여인을 파멸로 몰고 가는가를 상징적 수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이번 연극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문제의 피해자는 결코 여성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듯한 남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성문제는 배부른 자들의 투정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속에서, 결코 여성문제는 여성들의 자치권 확보가 아니라 "인간 모두의 평등성 회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

고자 한다. 따라서 그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남, 녀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다섯명의 배우가 끊임없이 역할 바꾸기를 하면서 거의 배우들의 몸동작과 연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연극은 때로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바탕의 웃음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작품은 약 4개월에 걸친 다양한 자료 수집과 현장 인터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개월에 걸친 토론과 창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동창작이 가지는 책임한계의 불분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장면 하나하나를 각자 준비해서 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일정정도 대본이 완성되면 극단의 상임 연출자가 검토하고 부분적인 각색을 하여 완성함으로써, 자칫 대본이 가지는 일관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했다. 때로는 사실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표현주의적 방법으로 각 장면의 특성에 맞게 표현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기도 하면서도 핵심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번 연극의 형식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13일, 다섯째 날

-어대생의 취업문제-

4월 13일, 다섯째 날

-어대생의 취업문제

개강을 하면서 종종걸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4학년 여학우들의 바쁜 발걸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졸업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는 여학우들이거나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고 누구보다도 늦게 도서관을 나오고 누구보다도 수업에 충실한 우리 졸업반 여학우들... 하지만 이른바 '취업시즌'이 되면 분주하게 입사원서를 내려 다니면 졸업반 여학우들의 몸속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졸자에게는 아예 원서교부조차 하지 않거나 원서접수를 해도 은밀한 성차별의 방법들-서류전형에서 제외, 필기시험에서의 절대우위 성적만을 인정, 면접에서의 외모 중시, 심지어는 '연수 성적 불량'이라는 남들하기 어려운 사유들-에 의하여 취업이 번번히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어대생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은밀하고도 우회적인 성차별의 방법이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어대생 취업차별

현상...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취업차별의 현실속에서 어대생의 취업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평생의 일터로 자리매김 될 자신의 삶의 공간을 보다 주체적인 노력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자료는 컴퓨터의 발달으로 없어져 버렸네요! 강연 당일 드십시오. 귀찮네요!!